

미국 마감 상황

2009.01.07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6일 뉴욕증시는 부진한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하루만에 상승 마감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62.21p(0.69%) 상승한 9,015.10에 장을 마감. 시작 직후 100p 이상 오르던 지수는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오후 상승세를 굳히며 30종목 중 19종목이 상승 마감.

S&P500 지수는 전일대비 7.25p(0.78%) 오른 934.70을 기록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.35p(1.50%) 오른 1,652.38을 기록.

이날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을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 밝혔지만 3,000억달러 세금 감면을 포함한 오바마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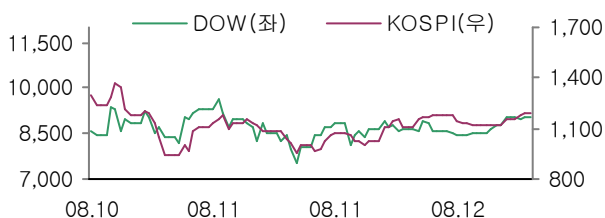
작년 11월 공장재 수주는 4.6% 떨어지며 예상치 2.2% 하락을 밑돌았고 11월 미결주택매매 또한 4.6% 떨어져 예상치 2.3% 하락을 하회.

한때 지정학적 불안정과 OPEC의 감산 영향으로 배럴당 54.47달러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경기지표 악화가 공급우려를 상쇄시키며 나흘만에 하락세로 전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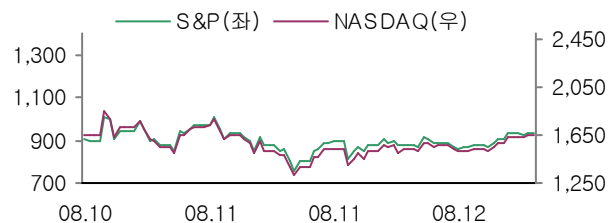
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는 전일대비 23센트 떨어진 48.58달러에 마감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9,015.10	0.69	4.00	7.07	4.40	-9.45	-29.72
S&P(좌)	934.70	0.78	4.95	8.29	6.69	-11.56	-34.00
NASDAQ(우)	1,652.38	1.50	6.56	8.60	9.48	-11.30	-33.89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